

더 나은 일자리를 상상한다

김한울 회원, 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

****구 요가원에서 선생님을 구해요!**

화 오후 7시 반 소도구 요가, 8시 40분 하타

목 오후 7시 반 매트 필라테스, 8시 40분 인요가

회원님들이 너무 좋으셔서 함께 오래 같이 하실 선생님 구해요!

010-****-**** 연락주세요^^

요가 강사 구인 사이트에 접속해 검색하다가 발견한 공고문이었다. 현재 일하는 요가원과 위치와 프로그램이 똑같아서, 혹시나 해 적혀있는 핸드폰 번호를 연락처에서 검색해 봤다. 요가원 원장의 번호가 떴다. 나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내가 일하는 타임에 채용공고를 올린 것이다. 너무 황당해 당장 그에게 연락했다. 그의 요지는 ‘요가원 운영이 어려운데 뭘 바꿔야 할지 모르겠기에, 일단 선생님이라도 바꿔보려고 했다. 미리 말해야 했는데, 나도 운영이 처음이라서 미숙했다. 미안하다.’였다. 속상하고 기분이 상했다. 그와 나 사이에는 근로계약서도, 심지어 프리랜서 계약서도 없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그와의 계약 관계를 증명할 길은 없었다. 구두로 ‘오래 일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주고받은 적은 있지만, 원할 때까지 계속 일해도 좋다든가, 정해진 계약 기간이 있다든가 하는 내용도 정한 바가 없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시간당 3만 원을 받는 관계. 그와 나는 딱 이 정도 계약 조건만 정해진 관계였다. 사과를 받는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통보 없이 해고되고 노예 계약서 제안받고

당장 돈을 벌어야 해서 화목 저녁에 필라테스 센터로 새로운 일을 구했다. 면접은 센터

대표(로 추정되는 사람)와 보고, 근로조건에 대한 설명은 홍보 대행사 직원이 따로 해주었다.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센터였고, 정리 정돈이 잘 되어있지 않은 곳이었다. 망할까 봐 무서웠다. 아니, 센터가 망해서 내가 일한 돈을 받지 못할까 봐 두려웠다. 대표의 개인정보와 최소한의 근로조건이라도 증명하자는 마음으로 대표에게 계약서를 쓰자고 연락했다. 그는 흔쾌히 좋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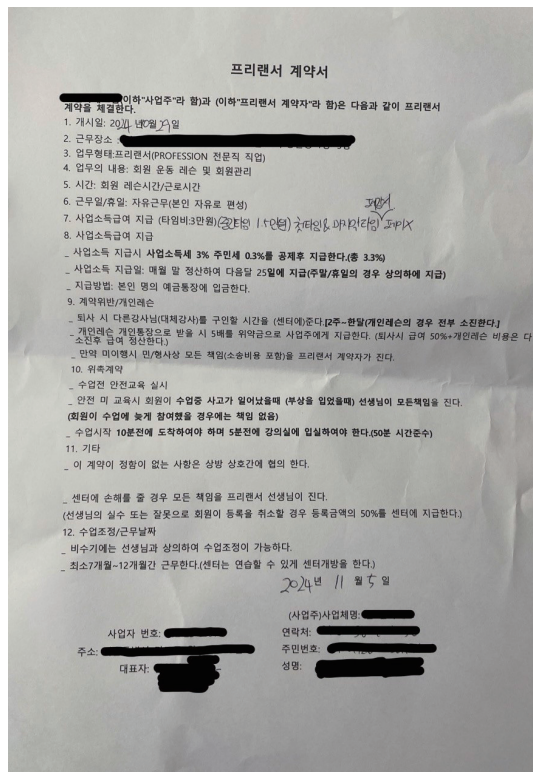
“센터에 손해를 줄 경우 모든 책임을 프리랜서 선생님이 진다.”

“비수기에는 선생님과 상의하여 수업 조정이 가능하다.”

“최소 7개월~12개월간 근무한다.”

노예 계약도 아니고…。 의무적으로 근로할 기간을 정해놓고, 모든 책임은 프리랜서인 내가 져야 하고, 센터 운영이 어려울 시 수업 조정이 가능하다는 너무나도 불합리한 계약서였다. 그럼에도 계약서에 서명했다. 계약서가 아예 없는 것보단 나으니까. 적어도 대표의 개인 신상을 파악할 수 있고, 시간당 임금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계약서에 서명한다고 해도 강제로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고, 모든 책임을 혼자서 져야 한다는 내용이 법적으로, 그대로의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정규직으로 하던 일을 그만두고 프리랜서 요가 강사, 필라테스 강사로 일한 지 3년 차다. 지금까지는 운 좋게 해고되지 않았었고, 임금이 체불된 적도 없었다. 그래서였을까. 주변 사람들에게 ‘다시 9 to 6으로 일 못 할 거 같아.’라고 말했었다. 지금의 노동 형태가 더 만족스럽다고 이야기했었다. 기존에 하던 일보다 노동 강도는 1/10로 줄었고, 임금은 80%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었으니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제대로 된 통보도 없이 해고되고, 말도 안 되는 노예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전혀 괜찮지 않았다.



▲ 사진: 김한울

프리랜서의 삶, 괜찮지 않기도 하지만

2022년 기준 국내 프리랜서의 규모는 406만 명에 달하며, 프리랜서의 비율은 2010년 후반에 급격하게 늘어났다. (한국노동사회연구원 자료) 2022년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2~30대 구직자 1,672명을 대상으로 ‘직 이코노미 트렌드’를 조사한 결과 46.0%는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여러 일을 해볼 수 있는 N잡 트렌드 확산’이 응답률 53.2%로 1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는 ‘원하는 시간에 비교적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을 것 같아서(39.9%)’가 2위를 차지했다. 많은 사람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적당한 시간 동안, 스스로 선택한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일에 얽매이기보다는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삶을 꾸려나가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그런데 프리랜서 3년 차,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프리랜서로 살아남으려면 매 순간 실력을 증명해 내야 하는데, 능력을 개발할 시간도, 돈도 없다. 막막하다. 당장 아프거나 다쳐서 일하지 못하면? 반려동물이 아파서 그를 돌봐야 한다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언젠간 나에게도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어야만 하루를 살 수 있다. 그렇게 얻어진 하루에 대한 주도권은 내게 있을지라도, 삶에 대한 주도권은 내게 없는 거 같다.

원하는 만큼만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쉬고, 어딘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삶. N잡러, 디지털 노마드 등으로 비치는 삶의 모습이 많은 이들이 꿈꾸는 프리랜서의 이상적인 삶일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은 원하는 만큼만 일하면 생계유지가 어렵고, 아파도 일해야 하고, 하나의 장소는 아니지만, 여기저기를 떠돌며 얽매인다. 2023년 일하는 시민연 구소에서 진행한 프리랜서 노동 실태 조사에 따르면 프리랜서의 1주일 평균 근무시간은 33시간이며, 평균 월급은 180만 원이다. 10명 중 3~4명(34.8%)은 지난 1년 중 3개월 이상 월수입이 끊긴 경험이 있었다. 무엇이 더 나은 일자리인지 모르겠다. 어느 것도 충분하지 않은 자리에 스스로를 꾸역꾸역 구겨 넣는 느낌이다. ‘먹고는 살 수 있으니, 다행이야’라며 스스로 되뇌지 않으면 그대로 펼쳐져 튕겨 나갈 것 같다.

얼마 전 한 중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했다. 생계유지가 노동의 가치 전부는 아니라고 이야기했다. 먹고 사는 것 이상을, 일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했다. 그게 무엇이든 원할 수 있고, 원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 말을 스스로 되새긴다. 더 나은 일자리를 상상하고, 원해도 된다고. 끈질기게 원해보자고 다짐한다. 